

KDB리포트

KDB Report

이슈브리프

인도네시아의 브릭스(BRICS) 가입과 시사점

북한포커스

북한의 지급결제 시스템 이용 현황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인도네시아의 브릭스(BRICS) 가입과 시사점	1
---------------------------------	---

북한포커스

북한의 지급결제 시스템 이용 현황	4
--------------------------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7
--------------------	---

인도네시아의 브릭스(BRICS) 가입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강명구 (mgk101@kdb.co.kr)

- ◆ '25.1월 BRICS의 파트너 국가에서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 인도네시아는 BRICS 가입으로 회원국간 경제 협력, 수출 확대, 미국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 일부 상쇄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이 더욱 높아질 전망

□ 인도네시아는 '25.1월 BRICS의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BRICS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5개국이 구성한 다자간 협력체로 출발, '24.1월 UAE·이집트·이란·에티오피아가 새롭게 가입하며 9개 회원국으로 확대
- 인도네시아는 '24.10월 BRICS에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였으며, '25.1월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여, BRICS 회원국은 10개국으로 확대
- * BRICS의 파트너 국가는 9개국(벨라루스,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태국, 쿠바, 우간다,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으로 BRICS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공동성명 등에 참여 가능

□ 인도네시아는 회원국간 경제 협력, 수출 확대, 미국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 일부 상쇄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BRICS 회원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내 입지 확대 등 기대
 - NDB*를 통한 인프라 개발 지속 및 재원 확대의 기회 확보 가능
 - * New Development Bank: IMF, World Bank 등의 대안으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 설립한 다자개발은행
 -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으로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친환경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등에서 회원국과의 협력 및 핵심적인 역할 수행 가능
 - * 전세계 매장량의 42%가 인도네시아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3년 기준 전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니켈 가격 유지, 환경 보호, 자국내 제련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원광 생산량 조절 및 수출 통제 조치 등을 시행 중
- 중국·인도에 집중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수출 확대 및 경제성장 도모
 - 인도네시아의 對BRICS 수출 비중은 '24년 기준 34.6%(714.7억달러)이며, 중국과 인도 비중이 각각 23.6%, 7.7%
 - 수출 비중 1% 미만인 여타 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기대

인도네시아 對브릭스 국별 교역 비중('24년)

(단위 :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UAE	아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합계	미국
수출	0.7	0.5	7.7	23.6	0.3	1.2	0.6	0.1	0.0	34.6	10.0
수입	2.3	1.0	2.4	31.1	0.7	0.9	0.1	0.0	0.0	38.5	5.1

자료 : trademap

-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對BRICS 수출 확대를 통해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의 對中 고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의 수입 수요(특히 원자재) 감소로 인도네시아의 對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인도를 비롯한 여타 BRICS 회원국에 대한 수출 확대로 일정 부분 해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

중국 주요 원자재 수입 중 인도네시아산 비중('24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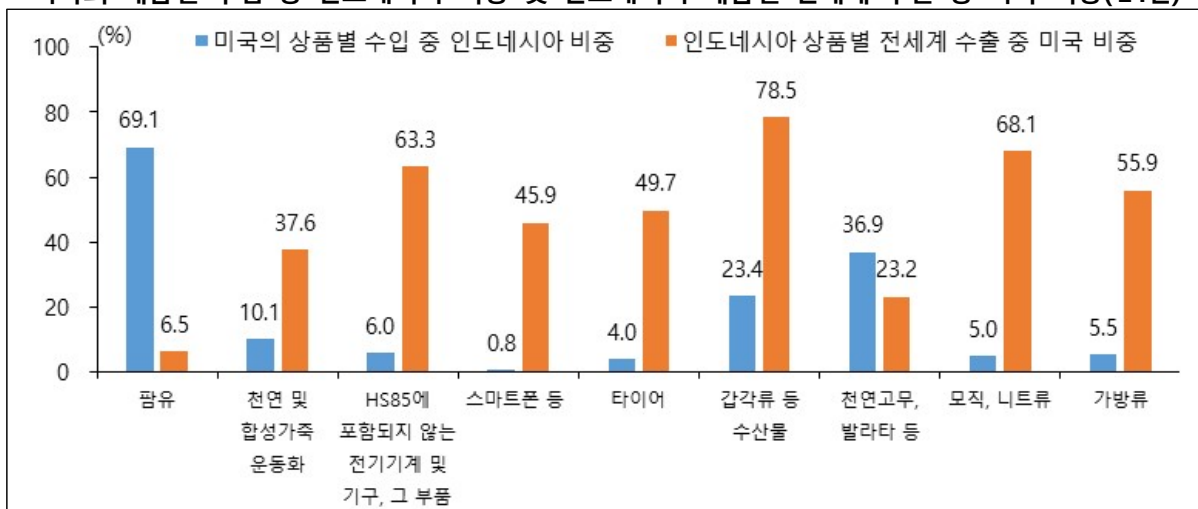
상품명	페로합금	니켈 매트 및 니켈 아금 중간 제품	스테인레스강 평판 압연제품	산업용 모노카르 복실 지방산	스테인레스 강철
비중	65.5	75.5	84.9	55.4	85.6

자료 : trademap

- 미국의 관세정책이 인도네시아를 향하거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팜유*, 고무 등은 美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로 인해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나, 운동화, 의류 등은 BRICS 회원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활용 가능

* '24년 對美 수출 1위 품목

미국의 제품별 수입 중 인도네시아 비중 및 인도네시아 제품별 전세계 수출 중 미국 비중('24년)



주 : 품목별 對미 수출 금액순

자료 : trademap

□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합이 더욱 높아질 전망

-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피해 해소의 일환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BRICS 회원국이며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인 인도네시아로 수출 확대 전망

* '24년 GDP 1조 4,026억달러(16위), 인구 2.8억명(4위)

- 우리나라와 중국은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제품 등 對인도네시아 수출 상위 30개 품목 중 16개가 겹치고 있어 수입시장에서의 경쟁 확대가 불가피
 - 현지화 전략, 가격·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인도네시아 시장내 입지 강화 및 對中 경쟁력 우위 확보 필요

북한의 지급결제 시스템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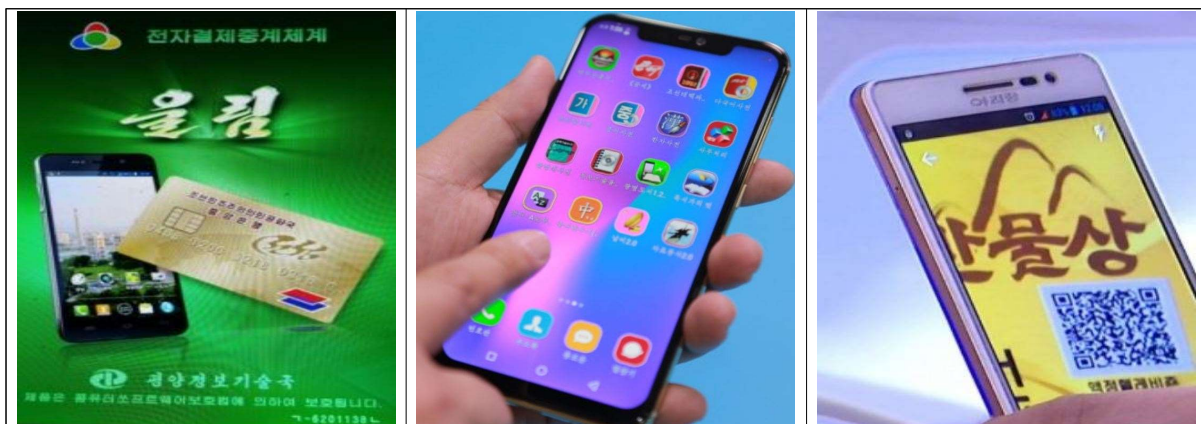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개발금융연구센터
권 미 나 (mina@kdb.co.kr)

- ◆ 2010년대 이후로 북한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자카드, 전화돈, 결제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전자지급결제 수단을 도입해왔음
- ◆ 북한 당국은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공공용 신뢰 회복 및 지급결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휴대전화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전자지급결제 수단이 활용되고 있음

- 은행 거래 및 결제 기능을 갖춘 전자카드, 통화 시간을 결제 및 송금에 활용하는 전화돈, 스마트폰 결제 어플인 울림 등 전자지급결제 수단을 이용 중임
 - 조선중앙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발급되고 있는 '전성카드'는 송금에 주로 이용되며, 수수료가 저렴하고 원거리 송금이 가능함
 - 휴대전화 통화 시간이 화폐로 환산되어 결제 및 송금에 활용되는 '전화돈'*은 은행 방문 필요 없이 휴대전화 가입자끼리 실시간 송금이 가능함
- * 박기찬('24.12), "북한 지급결제 시스템의 변화와 발전 유형", 지급결제학회지 제16권 2호
- 스마트폰 결제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인 '울림' 및 '강성'은 카드를 등록하면 QR코드가 생성되어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결제가 가능함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시스템 사용 현황



자료 : 금융소비자뉴스('23.3.28), "북한도 전자결제 카드 도입... '울림'은 카카오페이 같은 기능", 뉴스1('24.4.19), "북한에서도 물건 살 땐 스마트폰으로...전자결제시스템 사용 확대"

- 당국은 상업은행법, 금융정보화 정책, 전자결제법 및 정보식별부호관리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전자지급결제 시스템 확산 방안을 모색 중임*

* 손광수('22.12), "북한의 전자결제 현황과 제도변화 연구", 지급결제학회지 제14권 2호

- '15년 상업은행법 개정시 은행 업무에 카드 사업을 신규 추가하여 전자결제, 각종 사용료 지불, 은행 입출금, 송금 등이 가능한 전성카드를 출시함
- '19년 금융정보화 정책을 수립하여 금융 업무 컴퓨터화, 금융정보보호망 구축, 금융프로그램 개발, 망보안 사업 강화, 전자인증체계 도입, 전자결제 카드 서비스 구축 등 구체적 금융정보화 방안을 제시함
- '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하여 은행 전자결제와 은행 외 기관이 자체 구축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고,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을 통해 QR코드의 관리와 활용을 제도화함

□ 금융정보화 추진 배경에는 당국의 중앙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음*

* 데일리NK(2024.7.19), "지방발전 정책 그 후, 北 카드전자결제 사용 압박 1"

- 북한 당국이 카드 출시, 전자결제 도입 등 금융정보화를 장려하는 목적은 유틸 화폐를 공식 금융망으로 흡수함으로써 중앙 통제를 강화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임
- '09년 강행된 화폐개혁* 이후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는 경향이 나타나 유틸화폐가 증가함

* 화폐가치가 1/100로 떨어지고 1인당 교환 금액 단위도 제한되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 금융기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게 됨(손광수, 2022)

- '24.1월 '지방발전 20x10 정책' 발표 이후로 노동자 월급을 현물 지급하지 않고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 은행 기반 카드 사용과 전자결제를 적극 추진 중임*

* 데일리NK(2024.5.13), "북, 공장 노동자 은행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의무화... 왜?"

□ 북한 주민들의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에의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주민 통제라는 당국의 목적상 상업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여전히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전자카드는 은행 계좌에 예치한 현금을 사용하는데 주민들 사이에 은행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다 결제망이 국영상점 등 일부에 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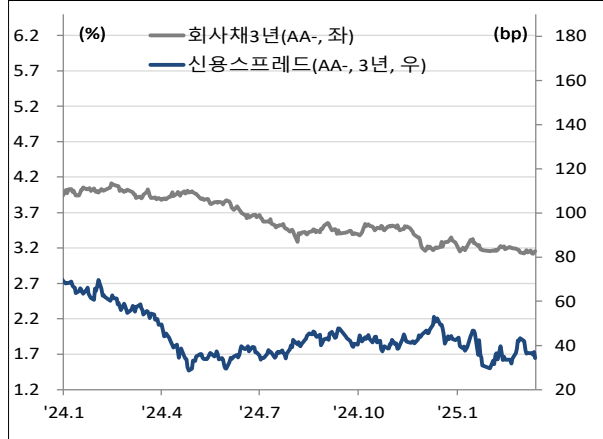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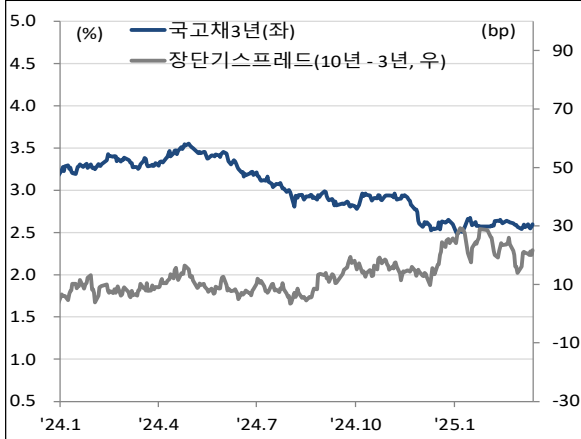
* 장마당에서는 카드 사용이 불가한 점, 국영상점 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점, 카드리더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지급결제망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 고유가 및 열악한 교통으로 인해 택배가 어려운 점도 전자카드의 확산을 저해함(이주영('22.8), "북한 소비자 지급수단 조사 및 분석", 『BOK 경제연구』)

- 결제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보급이 이루어진 평양 등 대도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구입 및 통신비 지출이 가능한 특정 계층 내에서 주로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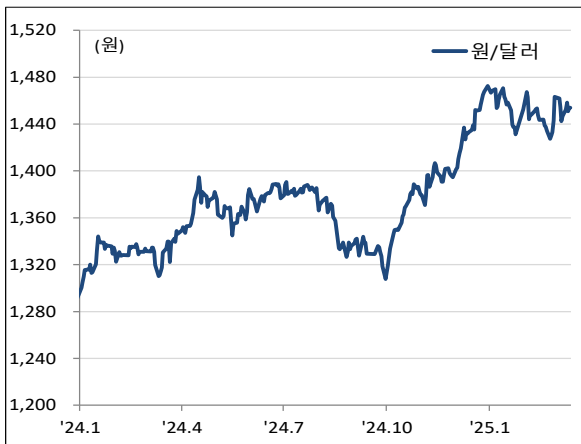
- 북한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기관 중심의 발전 단계를 밟지 않고 바로 모바일 방식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
 - 북한은 금융업의 불모지였지만 만성적인 물자 부족으로 인해 자원 효율성이 뛰어난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업금융의 발전 단계를 건너 뛰고 모바일 방식이 주도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 * 데일리NK(2024.12.21), "클로즈업 북한, QR코드 확산... 북한 전자결제 실태"
 - ** 중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미국, 한국 등에서 나타나는 형태 즉, 은행 및 신용카드사의 지급결제 방식과 ICT 회사의 지급결제가 혼재하여 경쟁하는 것과 달리 시스템 안정성은 낮으나 복잡하지 않고 경로의존성이 낮아 모바일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높은 혁신성을 보임. 현재 북한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혁신 가능성 측면에서 중국과 유사해 보이거나 ICT기업이 자유롭게 성장·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중국과는 다른 형태로 진전될 가능성이 큼(박기찬, 2024)
 - 전화돈은 은행 방문 없이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으나* 최근 전화돈 전송 금지 조치가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볼 때 공식 금융 체계를 벗어난 방식으로 인식되면 당국 의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 휴대전화 기술을 바탕으로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겨난 송금 방식으로 통신수단이 금융의 개념으로 확장됨(정은이('24.12), "북한 사금융의 등장과 발전 과정")
 - 전자카드 등의 전자지급결제 수단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기에* 근본적으로 금융 당국 및 화폐 가치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장원규('24.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변화와 시사점", 『통일과 법률』 제57호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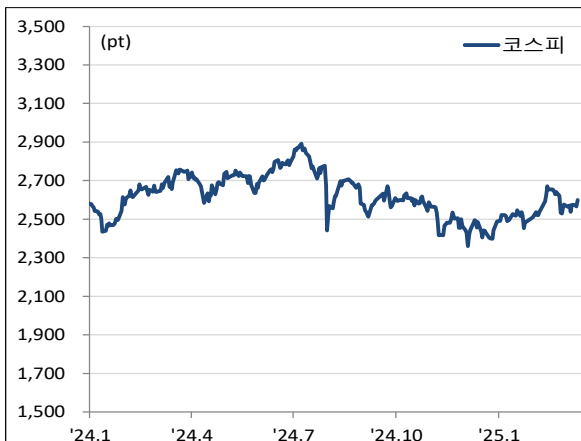
금 리 국고채3년 2.596% (5.5bp ↑), 신용스프레드 34.3bp (7.7bp ↓)



환 율 원/달러 1,453.8원 (8.0원 ↓), 엔/달러 148.6엔 (0.5엔 ↓)



주 가 코스피 2,598.98pt (2.77% ↑), 코스닥지수 737.01pt (0.12% ↓)



* ()는 전주대비 상승↑, 하락↓

KDB리포트

KDB Report

제1065호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